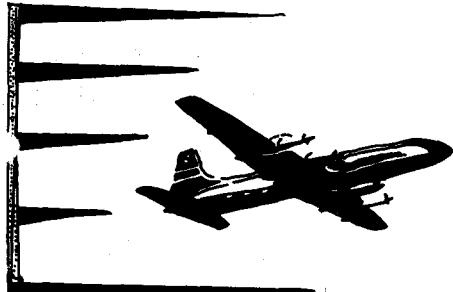


달걀의 질은 중요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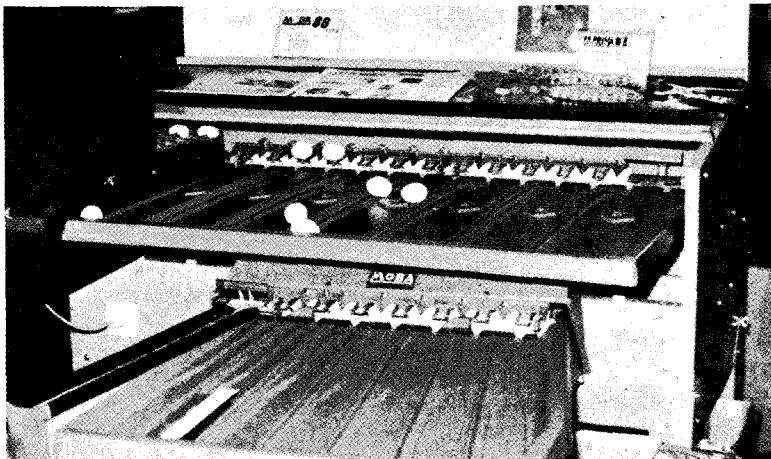
인식이 부족하다



김 용 화

〈본회 편집국〉

“소비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달걀의 질이다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달걀의 질은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UK에서는 규정된 질에 대한 기준이 올바른 것인지, 자연적인 것보다 대량생산물품에 의한 기준이 아닌가를 의문시하게 되었다. 권위 있는 양계산업자들은 생산에서 달걀의 질에 대한 인식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업자들은 달걀의 질에 대한 측정을 2등 품 발생률로 잡는다. 2등 품 발생률은 금이간 달걀의 숫자이다.

생산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윤을 추구하는 양계장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인데, 겹질이 약해짐을 나타낸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은 다양한 폭으로 전개된다. 특히 노른자가 노란 갈색란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갈색란은 생산량이 좀 적은

편이다. 그리고 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생산된 난보다는 부드러운 천위에서 생산된 난이 더 좋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신선하고 향기가 좋은 것을 선호하고 있다.

겹질의 강도 또한 수년동안 조사되어 왔다. 경제상의 중요성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됐던 것이다. 무게에 의한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것은 밀도에 의한 간접적인 측정이 된다. 그리고 액체비중계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용액속에 달걀을 담갔을 때 뜨는 정도에 의해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비중에 의한 측정은 겹질이 깨지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주는 실험이 되기도 한다. 겹질의 색깔도 세심한 연구가 있었다. 이것은 다소 달걀가게에서 임으로 평가하긴 하나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내부구성물질의 질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 노른자의 색깔은 급여사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는 색을 얻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합성색소에 의한 대용물을 사용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 되지만 부수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일부민의 질과 함유물 이상 발생을 문제는 빈번히 나타나는데 질이 저조한 일부민은 종종 질

병유발과 관련을 나타낸다. 특히 호흡기계통질병에 걸린 닭에서 생산된 달걀이 21°C에서 24시간 방치되거나,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저장시설 부족으로 보관이 방치된 달걀은 매우 빨리 상한다. 내부구성물질은 영양공급과 일치한다. 이것은 유전성에 의하여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참고 : World Poultry

시장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과잉생산물관리

— 남아프리카 —

남아프리의 경우 수급조절기구에서 어느 한도의 일정량에서 과잉생산된 달걀은 기구에서 인정해 주고 있다. 이 양이 1년동안 $350,000 \times 30$ (다스) 상자인 것이다. 각 지방마다 또는 시기마다 차이는 있다. 매달 할당받은 양을 초과하여 생산하면 결국 산물가격이 하락하게 마련인데 이 영향은 점차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결국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선 물량조절과 산란계 숫자조절을 한 기구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총 계획 수 파악은 초과된 과잉생산량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과잉생산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격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수급조절기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수급조절기구의 관리자들은 항상 발생하는 과잉생산품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소비자나 생산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공정거래상의 업무도 되는 셈이다. 이 기구는 생산자들의 자진 참여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선 이 조직과 흡사한 기

능을 담당하는 달걀생산자 분과위원회가 있다. 여기서는 수요시에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함이고 과잉생산물발생을 막아보자는데 있다. 이 분과위원회의 활동으로 시장은 안정이 되었다. 생산자가 협회에 달걀처리를 강제적으로 떠맡기면 평균적으로 판매가 부진해진다.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관리기금은 시장안정을 위해 도매가격과 고시가격의 차액을 줄이는데 쓰인다. 이 기금은 달걀을 포장할 때 단위당, 산란계에 부과하게 된다.

이용성이 우수한 품질을 정기적으로 협회가 공개를 한다. 회원들은 이 통계숫자보다 실제적으로 산란계의 일정한 유지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자 모두가 가입이 되고, 과잉생산물에 별칙금이 부과되어 과잉생산이 발생하지 않으면 도매가격과 관리가격이 동일해져 보다 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일정한 관리통제 없이는 수급조절이 불가능 하다고 남아프리카에서 얻어낸 결론이다. ■

참고 : Poultry International